



지혜의 땅이었다. 반야의 자궁이었다. 다섯 봉우리는 부처의 스승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500여리에 걸친 산 능선은 보살의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듯 보였다. 그래서 일까? 7월의 만동산은 두 가지 선물을 내어 보았다. 이름 모를 야생화로 수놓은 대지를 밝게 했고, 짙푸른 하늘은 순례자의 낯빛을 물들였다.

뭇 생명 감싸안은

대지의 보살

문수신앙의 성지 중국 오대산



우타이산(五台山)! 문수신앙의 고향이다. 관음성지 저지양(衛江)성 보타산, 미타성지 쓰촨(四川)성 아미산, 지장성지 안후이(安徽)성 구화산 등과 함께 중국불교 4대 명산 중 하나다.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우타이산을 예로부터 '금오대(金五臺)'라 부르면서 나머지 산들을 '은보타(銀普陀), 동이매(銅峨眉), 철구화(鐵九華)'라 일컬으며 첫손에 꼽았다. 한국불교와의 인연도 지중한 곳이다. 평창 월정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가 이곳에서 수행을 했고, <왕오전축국전>을 남긴 신라의 혜초 스님은 여기서 마지막 생을 보냈다.

역시 거산의 면모는 남달랐다. 산시(山西)성 성도(省都) 타이위안(太原)시 북쪽 약 200km지점 중심에 위치한 우타이산은 평균 해발 2400m를 훌쩍 넘는 다섯 봉우리가 곳곳에 서 있었다. 엽두봉의 빼이타이(北台)가 해발 3056m로 가장 으뜸이 되고, 금수봉의 종타이(中台)가 2936m, 망해봉 퉁타이(東台) 2880m, 계월봉 시타이(西台) 2860m, 취암봉의 난타이(南臺)가 2757m로 가장 낮다. 한국의 백두산보다 높은 봉우리들은 높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았다. 평원 같이 완만한 곡선을 그려 보이며 뭇 계곡과 생명들을 품고 있었다.

우타이산에 불문(佛門)이 열린 지는 후한 명제 영평연간(58-75년). 한나라 명제가 사신을 천축에 파견해 불경을 구해오게 한 후부터 우타이산에 사찰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당나라 때는 사원이 360여개에 달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이후 문화혁명의 시련기를 거치면서 현재는 108개의 절이 남아있다.

우타이산 순례 첫날은 사하촌 격인 타이후아이전(臺懷鎮)에서 시작했다. 중국정부가 4년전부터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한 이곳은 수십 개 사찰이 연립주택처럼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우타이산의 중심 사원인 시안통(懸通)사를 비롯해 타이위안(塔院)사, 슈시양(殊像)사 등이 밀집해있다. 특히 라마교 색채가 짙은 타이위안사의 따바이(大白塔)는 타이후아이전 순례의 백미였다. 원나라 대덕 5년(1301년) 때 세워진 이 탑은 높이 56.3m나 돼 우타이산의 중심이 됐다.

발길을 시안통사로 옮겼다. 우타이산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서 동한 영평 10년(68)에 세운 시안통사는 4만 3,700㎡ 규모에 관음전, 문수전, 대웅보전, 나한당, 선방 등 전각이 400여 개가 들어섰다. 이에 우타이산에서 가장 큰 문수보살상이 모셔진 슈시양사로 이동했다. 문수보살이 1만 명의 제자를 데리고 슈시양사 뒷산 토포에서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온 이곳은 1500년 전에 창건



대리정 정상에서 바라본 우타이산의 사람들.

됐다 소실된 것을 600년 전에 복원한 사찰로, 대문수전에는 12m의 문수보살이 조성돼 있다.

순례 이를 꽤. 타이후아이전을 벗어나 종타이와 퉁타이로 향했다. 10인승 승합차로 1시간 가량 산을 타고 올라갔다. 산능선은 야생화가 지천이었다. 까마득히 먼 계곡 곳곳에는 사원들이 즐지어 서있고, 시원스럽게 펼쳐진 초원에는 말과 양떼가 한가롭게 풀을

자장 율사 혜초 스님 주석했던 곳 당대 360여 사찰 108개 남아 3보1배 오체투지 구도열기 가득

뜯고 있었다. 그렇게 올라간 종타이. 자장율사가 삼철일 기도 끝에 문수보살을 천경했다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에게 가사와 발우,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머리에 스쳤다. 종타이 오르자 순례객을 제일 먼저 맞은 것은 문수사리탑이었다. 순간, <화엄경> '보살주춤'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문수보살이 1만의 보살 대중을 거느리고 살면서 법을 설했다'는 말. 문수보살의 자취를 어렵잖이 문수사리탑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문수보살의 체취 찾기는 자연스럽게 종타이와 빼이타이 중간에

있는 자오위치(澡浴池)사로 옮겨졌다. 흔히 문수보살이 목욕을 했다고 해 '태화지'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한국불교와 인연이 깊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자오위치사는 자장 율사가 기도 후, 문수보살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성을 깨달아오니 / 자성이 있다는 것은 없다 / 이 같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성을 이해하면 곧 비로자나부처를 보리라"란 4구절을 받고 돌아온 곳이다.

자오위치사를 뒤로 하고, 퉁타이에 올랐다. 꼬불꼬불 난 산길을 30분 정도 오르니, 왕하이(望海)사의 향로가 눈에 들어왔다. 연신 피워 오르는 향, 순례객들의 발이 끊이질 않았다.

출가한 지 4년이 된 장주(昌住) 스님은 "왕하이사는 문화혁명 때 대부분 소실됐는데, 문수보살상 만큼은 당시 어느 노보살이 땅에 묻어놓는 바람에 훼손을 피할 수 있었다"며 "그 보살님이 문수보살이 아니겠느냐"고 웃음을 지었다.

1시간가량 퉁타이를 참배하고 돌아 나오는 계단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우타이산 초입에서 퉁타이까지 꼬박 3일 걸려 3보1배하며 순례하는 재가자였다. 내리찍는 햇빛, 뜨거운 복사열, 땅바닥에 얼굴을 대보았다. 후끈 달아오른 열기에 숨이 꼭 막혔다. 그런데 왜? 그 같은 고행을 하는 걸까? 곧장 물었다. 잠시 후, 짧은 말 한마디가 돌아왔다. "즈시환(只希歡)!" "그냥 좋아서"였다. 사일 타이위안사에서 서도 생동하는 중국불교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체투지를 설했어 하는 스님들의 구도열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후원: 한진관광

글·사진/중국 요타이산=김철우 기자



종타이(中台)의 자오위치(澡浴池)사.



우타이산의 최대 사찰 시안(懸通)사.



슈시양(殊像)사에 조성된 우타이산 최대 문수보살상.

최고 30% 파격적인 할인에 무료배송까지!! 여름휴가를 여시아문 도서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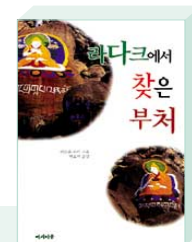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여시아문에서 발행된 도서를 파격적인 할인과 함께 무료배송서비스 혜택(30,000원 이상 구매시)까지 드리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올 여름휴가는 여시아문도서와 함께 볼서 탐독의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www.yosiamun.com을 참조하세요.

행사기간 : 2005년 7월 20일 - 8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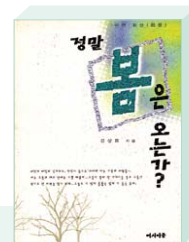
여시아문 <http://www.yosiamun.com>

yosiamu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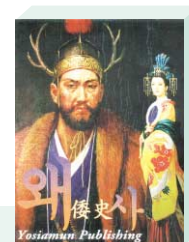
전화주문 : 02_737_0696 팩스주문 : 02_2004_8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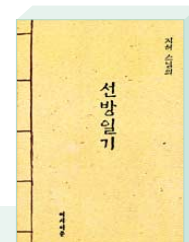
라다크에서 찾은 부처
장가 12,000원
특별가 9,600원(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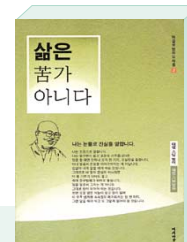
정말 불은 오는가
장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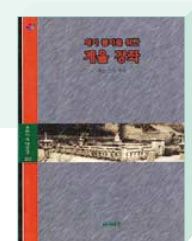
왜 사
장가 25,000원
특별가 17,500원(30%)



선방일기
장가 5,000원
특별가 4,250원(15%)



삶은 고통이 아니다
장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제가 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장가 6,500원
특별가 5,200원(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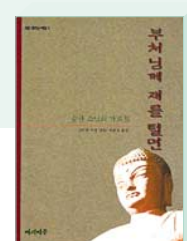
스님 이야기
장가 9,600원
특별가 7,680원(20%)



원각경
장가 9,500원
특별가 7,600원(20%)



스님 오조를 뭘 하십니까
장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



부처님께 재를 들면
장가 9,000원
특별가 7,200원(20%)